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4월 19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열왕기하 22장 1-7절

설교제목 : “옳은 길을 따르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은, 열왕기에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된 두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 왕이, 히스기야이고, 다른 한 왕이 요시아입니다.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왕에 대하여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는 두 왕의 차이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왕하18:5) 반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왕하23:25)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공통점 있는데, 그들이 젊었을 때에 ‘영적개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에는 청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이십 오세’의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 영적개혁을 주도합니다.(왕하18:2) 반면, 요시아는 팔세에 왕위에 올라 본격적으로 이십 육세부터 본격적인 영적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왕하22:1/왕하22:3)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쓰신 ‘청년이여’라는 글에 보면, ‘청년이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청년이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이상재 선생님의 말씀은 옳음을 위해 사는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희망이 되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불사르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옳음을 아는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상재 선생님은 참된 지혜는 ‘하늘에서 온다’, ‘하늘의 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아의 영적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왕하22:3-7) 요시아는 그의 나이 스물 여섯 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한지 거의 2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요시아 왕은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와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왕하22:8) 아마도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모세오경에서 ‘율법책’이라는 명칭은 오직 신명기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요시아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왕하22:11)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이 요시아의 마음 속으로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요시아가 율법책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참된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이 이상재 선생님이 자신이 끝까지 YMCA에서 청년들을 위해 성경공부를 가르쳤던 이유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해 옳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참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개혁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옳은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한 이후에 옳은 길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바로 요시아 왕이 옳은 대로 행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안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길을 따라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혹시 2017년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여의도 국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 모두는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우리 국민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민족이 싸우고 이루어낸 역사를 회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옳음의 가치를 위해 피흘려 싸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옳음을 위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이념적 가치보다 옳음의 가치입니다. 더불어 옳음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15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칼로스’는 ‘선(善)(아가도스)’, 즉 ‘착하다’의 의미보다는 더 폭넓은 의미로 도덕적인 선은 물론,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 즉 한마디로 ‘**옳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옳은 길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옳은 길을 따라 사는 일에 힘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길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옳은 길을 따라 사시는 영적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열왕기서에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된 왕은 누구이며, 그러한 평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이상재 선생께서 ‘**청년이 미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3) 옳은 길을 아는 것보다 옳은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옳은 길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옳은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 봅시다.(가령, 자녀교육, 직장생활, 사업, 결혼생활, 교회생활 등)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